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희 의원

### “과도한 의전절차·불필요한 의전관행 없애야”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18일 열린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현장 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 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 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모든 행사와 보고회는 우리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석하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그러나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경험들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 내·외빈에 대한 소개와 과도하게 길어지는 축사는 본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길고 긴 축사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느라 즐거워야 할 잔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구청 주관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적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의전 기준과 매뉴얼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전 기준을 따르지



만 전직 의원까지 관행처럼 소개하는 경우, 심지어 현역의원보다 먼저 소개하는 경우, 더 나아가 전직 의원까지 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은평구청이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소개하며 과도한 내빈소개 및 축사인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중심의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며, 우산 씌워주기, 차문 열어주기 등 불필요한 의전 관행은 없애기로 하는 등 모든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의전 간소화를 실천하기를 제안하며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힌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동북일보 4면

## “시민의식 변화에 발맞춰 행사 의전 간소화해야”

김 명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번1·2동, 수유2·3동)

김명희 의원은 1월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현장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며 의전 간소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연말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경험들이 반복돼 스스로도 부끄럽고 불편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밝히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외빈에 대한 소개와 과도하게 길어지는 축사는 본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주



▲ 김명희 의원.

민들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길고 긴 축사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느라 즐거워야 할 잔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행사에서 가장 어렵고 예민한 영역이 정치인의 경우인데,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전직 의원까지 관행처럼 소개하는 경우, 심지어 현역의원

보다 먼저 소개하는 경우, 더 나아가 전직 의원까지 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여러차례 목격하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축사가 길어?” 하는 불만소리를 들을때마다 제 스스로가 낮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의원은 2019년 1월 3일자 신문에서, 은평구청은 민선7기 구정목표의 하나인 ‘주민이 주인인 은평’에 걸맞게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다며,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의전 간소화를 실천하기를 제안했다. <최동수 기자 cdsco12000@hanmail.net>

## 김명희 의원, '구민이 주인공' 행사 의전 간소화 제안



▲ 김명희 강북구의원

“구민들은 매번 지겹다는 소리를 반복 하지만 행사 진행 상 무시하기 어려운 의전의 간소화가 가능해질까?”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은 이에 대해 총대를 댔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민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현장 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며 의전 간소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경험들이 반복됐다.”며 “스스로도 부끄럽고 불편한 경험들이었다.”며 지난 연말 각종 송년행사 및 부서

사업들의 결과 보고회의 기억을 떠올렸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관계자들 역시 식전 행사로 내빈 소개와 축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다.

김 의원은 “통일적 기준을 따르는 경우 외에는 축하 내·외빈에 대한 의전 기준과 매뉴얼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은평구가 ‘주민이 주인공은 평’에 걸맞게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은평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강북구청과 강북구에 의전 간소화를 제안했다.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불필요한 의전관행 없애자



지난 18일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현장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자’고 했다.

김명희 의원은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시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내·외빈에 대한 소개와 과도하게 길어지는 축사는 본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우리 주민들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길고 긴 축사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느라 즐거워야 할 잔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들로부터 내빈 소개와 축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하소연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대 구의회에서는 구의원 소개와 축사에 대한 기준을 집행부와 공유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축하 내·외빈에 대한 의전 기준과 매뉴얼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모든 행사에서 가장 어렵고 예민한 영역이 정치인의 경우인데,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전직 의원까지 관행처럼 소개하는 경우, 심지어 현역의원보다 먼저 소개하는 경우, 더 나아가 전직 의원까지 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은평구청의 행사 의전 대폭 간소화 내용을 소개하며 ‘구민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의전 간소화를 실천하기를 제안했다.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과도한 의전절차 · 불필요한 의전관행 없애야”



지난 18일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구민을 주인으로 삼고 현장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 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되는 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명희 의원은 “모든 행사와 보고회는 우리 구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석하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그러나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경험들이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참석 내·외빈에 대한 소개와 과도하게 길어지는 축사는 본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길고 긴 축사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느라 즐거워야 할 잔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이다”며 “구청 주관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적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의전 기준과 매뉴얼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전 기준을 따르지만 전직 의원까지 관행처럼 소개하는 경우, 심지어 현역의원보다 먼저 소개하는 경우, 더 나아가 전직 의원까지 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명희 의원은 은평구청이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소개하며 과도한 내빈소개 및 축사인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중심의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며, 무산 췌워주기, 차문 열어주기 등 불필요한 의전 관행은 없애기로 하는 등 모든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끝으로 김명희 의원은 “구민을 주인으로 삼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의전 간소화를 실천하기를 제안하며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필 기자